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세계사를 활용한 현대음악 통합교육 지도방안

-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우 주 형

2022년 8월

세계사를 활용한 현대음악

통합교육 지도방안

-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효 정

우 주 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우주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허 대 식 ㉞

위 원 박 응 ㉞

위 원 김 효 정 ㉞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년 6월



A Study on Guidance Plan for Integrated Education
of Modern Music Using World History

- Focusing on Schoenberg's "A Survivor from Warshaw"

Woo, Ju Hyeo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o J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Hyo Jung, of Music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2022. 8.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표목차	iii
그림목차	iv
악보목차	v
국문초록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고찰	4
4. 연구의 제한점	5
II. 본론	6
1. 통합교육의 이해	6
가.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6
나.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	8
다. 통합교육과정 모형	9
2. 현대음악의 이해	17
가. 현대음악의 개념	17
나. 현대음악의 필요성	19
3. 제2차 세계대전의 이해	21
가. 2차 세계대전의 배경	21

나. 2차 세계대전의 전개	26
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26
라. 2차 세계대전이 음악가들에게 끼친 영향	27
4. 바르샤바의 생존자 작품 이해	30
가. 쇤베르크의 생애 및 작품	30
나. 바르샤바의 생존자 작품 개요	33
5. 교수-학습 방안의 실제	50
1. 지도계획	50
가. 1차시 수업지도 계획	51
나. 1차시 수업지도안	52
다. 2차시 수업지도 계획	58
라. 2차시 수업지도안	58
III. 결론 및 제언	64
참고문헌	66
ABSTRACT	69

표 목 차

[표 1] 드레이크와 포가티 유형의 종합	16
[표 2] 20세기 현대음악의 연도별 구분	18
[표 3] 바르샤바의 생존자 오케스트라 편성	35
[표 4] 바르샤바의 생존자 전체 구성	36
[표 5] 마디 71-80의 표현요소들	46
[표 6] 각 차시별 학습목표	51
[표 7] 1차시 수업 형성평가지	57
[표 8] 2차시 수업 자기평가지	63

그림 목차

[그림 1] 드레이크의 통합 유형	11
[그림 2] 포가티의 10가지 통합 모형	12
[그림 3] 무료급식소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 실업자들	24
[그림 4] 포가티 거미줄형 모형으로 재구성한 수업 설계 모형	50

악보 목차

[악보 1] 트럼펫 주제 동기, 마디 1	36
[악보 2] 트럼펫 상행 모티브 I, 마디 25	36
[악보 3] 트럼펫 상행 모티브 II, 마디 32	37
[악보 4] 나레이터 부분 I, 마디 12-19	38
[악보 5] 나레이터 부분 II, 마디 20-25	38
[악보 6] 변형된 트럼펫 동기 I, 마디 32-33	43
[악보 7] 변형된 트럼펫 동기 II, 마디 34	44
[악보 8] Vcl, Cbs 리듬, 마디 71-80	45
[악보 9] 합창의 기본 음렬	46
[악보 10] 나열된 합창 음렬, 마디 80-86	47
[악보 11] 기본 음렬	49
[악보 12] 전위 음렬	49
[악보 13] 역행 음렬	49
[악보 14] 역행 전위 음렬	49

국문초록

세계사를 활용한 현대음악 통합교육 지도 방안

-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중심으로

우 주 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지도교수 : 김 효 정

음악에는 음악 고유의 질뿐 아니라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다.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통해 음악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음악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실 수업에서의 획일화된 악곡 사용으로 인하여 현시대와 가장 가까운 20세기 현대음악은 그 이해와 인식이 저하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확산적 사고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등 다양한 시선으로 음악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미래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대음악의 개념과 의미를 고찰해 그 당위성을 주장하며 20세기 현대음악인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중심으로 세계사 교과와 <제2차 세계대전>과의 통합적 지도를 제안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총 2차시의 지도안을 구성하기 위하여 문헌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합교육의 유형을 탐구하였다. 탐구를 통해 연구의 성격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포가티의 통합 유형을 선택하였고 그 안에 속한 '거미줄형 모형'으로 수업을 조직하였다.

1차시는 학생들의 현대음악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현대음악의 기법과 표현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을 우선에 두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의 학습을 통해 작품의 개념적 배경을 제공해 표현요소들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업이 끝나고 난 후 형성평가를 진행한다.

2차시에는 1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작품에 사용된 현대음악의 기법 원리의 이해와 그 실습을 진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며 자기 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수업을 마무리 짓는다.

현대음악은 어딘가에서 저절로 탄생한 것이 아닌 과거의 음악과 유기적으로 맞물려오며 발전된 음악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음악 문화와 역사는 구성되었다. 본 논문의 통합적 현대음악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현대음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낯선 경험이 현대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추구하는 방아쇠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불리는 지금의 현대사회는 변화와 혁신이 이전보다 확산적으로 발생하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특징을 보이고있다. 가속화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모든 사물과 사고를 연결시키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과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과도한 지식 정보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중점에 두고 인문, 사회, 과학 기술과 같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문제 해결에 있어 해당 분야의 영역뿐만 아닌 그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두고 있다.¹⁾

여기에 더해 교육부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예술 및 교과와의 연계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적인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지식을 심화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경험을 확장 시킨다.²⁾ 라고 설명한다. 이는 통합교육이 교과의 학습효과를 유기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대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초연결 사회(Hyper Connected Society)³⁾로 나아가는 흐름에 맞추어 학교의 교육 또한 독립된 교과들을 벽으로 구분 짓는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밀접하게

1)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5, p. 3.

2) 교육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015, p. 4.

3)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로 기술의 발달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를 지칭.

관련지어 새롭게 조직하는 통합교육 형태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잡성(Complexity)⁴⁾과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창의적 사고 능력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라 정의되고 있다. 이 감정과 사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며 억압에 저항하던 정신은 동요로 나타났고,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Wilhelm Tell)은 오스트리아의 지배에 저항하는 스위스의 국민들의 투쟁 의식을 보여주며 쇼팽은 폴로네이즈(Polonaise)와 마주르카(Mazurka)를 통해 당시 약소국이던 폴란드인의 민족의식과 자긍심을 담아냈다.

이처럼 음악이 모든 시대와 문화권에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개인의 정신과 사회의 이념에 큰 영향을 끼쳐온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사회적 관점에서의 음악교육은 이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재의 음악을 듣고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대음악 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빈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현대음악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음악 교과에서의 현대음악 학습실태 조사⁵⁾에 따르면 460명의 학생 중 현대음악이 대중음악 또는 실용음악이라 답한 학생이 281명(61.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음악 수업이 고전과 19세기의 낭만적 미학관에 치중해 나타난 결과로 학생들의 현대음악에 대한 개념학습과 인식이 부족하고 접촉 빈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음악의 출발점이라 여겨지는 20세기 음악은 현재의 인류가 경험하고 누리려는 문명의 발판이 되는 수많은 발명과 발견들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매스 미디어의 발달,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발견, 컴퓨터의 개발 등은 인류의 역사에 거대한 한 획을 남겼으며 현재를 위한 문명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이들과 맥을 같이 하며 이들의 영향

4) 단순성(Simplicity)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러 관계가 얽혀있는 상태.

5) 김은, "고등학교 음악교과에서의 현대음악 학습실태 조사연구", 음악교수법연구7, no.0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논문집, 2011), pp. 49-71.

속에서 탄생한 20세기 음악 또한 인류의 발견과 역사가 담겨있는 것으로 20세기 음악은 반드시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며 상상하던 미래를 향해 발전해가는 현대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느낄 수 음악은 현대음악이다. 이에 따라 독창적이며 시대의 특수성이 투영된 현대음악을 주제로 한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를 성장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가치 있는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인류의 역사를 구분 짓는 큰 기점인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대음악인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을 제재곡으로 삼고 포가티 모형⁶⁾을 적용시킨 통합교육 지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시한 총 2차시로 구성된 수업 지도안과 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음을 단순한 소리로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여 사회적, 역사적 관점과 연관 지어 바라보고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현대음악과 그 기법을 알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여 통합교육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고 여러 통합 유형에 대한 탐구를 거쳐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포가티 모형 중 거미줄형 모형을 선택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현대음악의 개념과 배경을 알아보고 현대음악의 교육의 당위성을 논점으로 삼는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고찰하며 전쟁이 음악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6) 교육과정 통합에 사용될 수 있는 포가티가 제시한 10가지 모형.

넷째, 연구에 사용하는 현대음악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선택해 통합교육의 이점을 제고하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특징 및 기법을 살펴본다.

다섯째, 제시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세계사와 현대음악을 중점으로 한 음악 교과의 통합적 지도안을 개발하고 그 자료를 제시한다.

3. 선행연구 고찰

음악과 다른 교과의 통합 수업을 다루고 있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예영(2017)⁷⁾은 인상주의, 원시주의, 표현주의 등 20C의 다양한 사조를 선택하여 해당 사조와 맥을 나란히 하는 문학, 미술, 무용 등과 음악을 연계한 수업을 통하여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대하고 음악적 사고를 확장 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효진(2019)⁸⁾은 민요 <아리랑>을 활용하여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역사와 통합한 음악교육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한국 가곡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지도안을 구안 하였으며 음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함께 가르쳐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박지은(2017)⁹⁾은 창작 뮤지컬 <영웅>을 활용하여 음악 교과와 역사 교과를 통합하였다. 통합 수업의 목표를 음악 표현 능력과 포괄적 이해력 발달에 두고 교육부의 목표와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통합교육이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기여함을 주장하였다.

박지윤(2019)¹⁰⁾은 음악 교과는 국어, 역사 교과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며

7) 서예영, "타 예술과 연계한 현대 음악 지도 방안.", (석사학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7).

8) 이효진, "음악교과와 역사교과의 통합적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연구.", (석사학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9) 박지은, "뮤지컬을 활용한 음악교과와 역사교과 통합수업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10) 박지윤, "중학교 음악통합수업 연구.", (석사학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현행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음악·역사·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국악 감상 중심의 통합 수업 지도안을 구안하였다. 끝으로 통합교육과정이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임을 주장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통합의 범위를 음악과 세계사 교과로 한정 지어 다루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여러 학자의 통합 유형 가운데 포가티 유형을 선택하였고 포가티가 제시한 10가지 방식 중 하나인 '거미줄형' 모형을 사용하였다.

셋째, 개발된 수업지도안은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대상에 맞는 난이도를 설정하고 어휘를 사용하였기에 다른 학년 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한 연구로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검증 과정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그에 맞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II. 본론

1. 통합교육의 이해

가.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쓰이는 통합교육의 개념은 크게 '주류화(Mainstreaming)'와 '통합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주류화는 장애아동과 같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일반아동과 함께 동등한 교육을 받는 것이며 통합교육과정은 교과 영역에 구애됨 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습 내용 및 경험을 수평적으로 선정, 조직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¹¹⁾ 본 연구에 적용된 통합교육의 개념은 통합교육과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교육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 진행되던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운동이 학습경험 및 교육과정의 통합을 주요한 논제로 다루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 진보주의 교육사상가인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경험 중심의 교육에서부터 교과 통합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분과 형식의 교과를 강조하는 브루너(Jerome S. Bruner, 1915-2016)의 학문 중심교육의 등장으로 인하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점차 줄어들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 인간 중심교육 등의 영향으로 교육과정의 통합 운동이 다시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²⁾

통합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전인적 교육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의 성취, 학생들의 학습 부담 축소 그리고 세계적인 통합 지향성 등에 뿌리를 두고 교육 과정에 나타났으며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통합교육과정이 제안되었다.¹³⁾

1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1999), p. 726.

12) 유광찬, 이영준, 송규영, 『통합교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5), p. 10.

이처럼 통합교육은 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여러 갈래로 나타난다.

김재복은 통합교육과정에 관해 각 교과를 분리하던 경계를 무너뜨리고 여러 교과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교육과정 조직을 위한 접근으로 보고,¹⁴⁾ 학생들의 경험이 학교의 지도 아래에서 공간적, 시간적, 내용 영역에 있어 상호 관련지어지고 의미 있게 모여 전체적인 학습을 이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성향 변화가 가치를 가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¹⁵⁾

이영만은 통합교육이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각 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발달하도록 하게끔 하는 전인교육의 대표적 교육방법이라 정의하였다.¹⁶⁾

곽병선은 통합교육을 독립된 학문 또는 지식의 분화에서 벗어나 교과 사이의 울타리를 고려하지 않고 각 교과 지식과 경험을 필요에 의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¹⁷⁾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해 교과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교과들을 가로질러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학습경험과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교육이며, 교육내용이 통합됨에 따라 개개인의 인격도 통합되어 사회의 전체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⁸⁾

이처럼 통합교육의 의미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 개념들은 통합교육을 각기 다른 교육적, 철학적, 인본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학습 내용이 특정한 어떤 것으로 구분 지어지지 않고 조화와 통합을 이루며 인간의 삶과 관련된 하나의 전체적 지식이 되어야 함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13) 이경민, 최일선, 『통합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서울: 학지사, 2009), p. 12.

14) 김재복, 『통합교육과정』, (과주: 교육과학사, 2000), pp. 5-6.

15) 김재복,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1995), pp. 23-24.

16) 이영만, 『통합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2003).

17) 곽병선,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83).

1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게서, p. 524.

나.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

21세기 현대사회에 이르러 전인적 교육이 강조되며 교과 영역별 경계를 허문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이는 음악교육 분야에서도 음악교육과 인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통합교육은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학교 교과를 서로 관련 없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과 대비해 각 교과를 의미 있게 혼합하고, 조합하고, 융합하고, 결합한다. 이러한 통합은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단계의 사고와 다원적인 지적 활동, 협동 학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¹⁹⁾ 즉, 통합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하나로 통합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영만은 자신의 저서인 <통합교육과정>에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통합교육과정은 현대사회의 특징인 '지식의 폭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지식 간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팽창된 지식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탐구하고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사고 기술의 학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전통적 학교 교육은 이론과 논리를 중시하는 기존의 전통에 매몰되어 사회라는 학습자의 맥락과 생활환경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통합은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게 될 맥락, 즉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의미 있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두뇌는 본래 개별적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여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학습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서로 결합된 정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습 내용을 통합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정보 처리 체계에 알맞게 학습 내용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 특성에 맞게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두뇌 중심 학습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통합이 필요한 절대적 이유는 전인교육의 실현에 있다. 교육과

19) 김재복, 전계서, p. 169.

정의 통합을 경험함으로써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부분의 균형적 발달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비롯한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자아를 실현하고 전인적 인격 발달을 촉진 시킬 수 있다.²⁰⁾

결국 통합교육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팽창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다. 교과 간의 중복되는 내용을 피해 학습 부담을 덜고 자신의 학습에서 능동적 주체가 되어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전인적 인간 양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사각각 변하는 현대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 통합교육과정 모형

통합 교육과정의 유형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통합교육과정 유형이 하나로 정의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두 교과 간의 통합수업을 위한 것으로, 이에 적합한 드레이크(S. M. Drake)의 유형과 포가티(R. Fogarty)의 유형을 알아보려고 한다.

1) 드레이크의 유형

드레이크는 통합교육을 학문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 있으며 학문이 연결되는 방식이나 통합의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짓고 있다. 이 구분은 통합 정도의 순에 따라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탈학문적(Extradis-Ciplinary)으로 구분된다.

(1) 다학문적 통합

다학문적 통합이란 각 학문의 성격이 분명해 학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한 주제를 여러 학문의 관점으로 동시에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문 간 독립성을 강하게 유지하며 병렬적 통합

20) 이영만, 전계서, p. 39.

을 추구한다. 이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 각 학문이 표방하는 개념과 이론들을 다면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을 종합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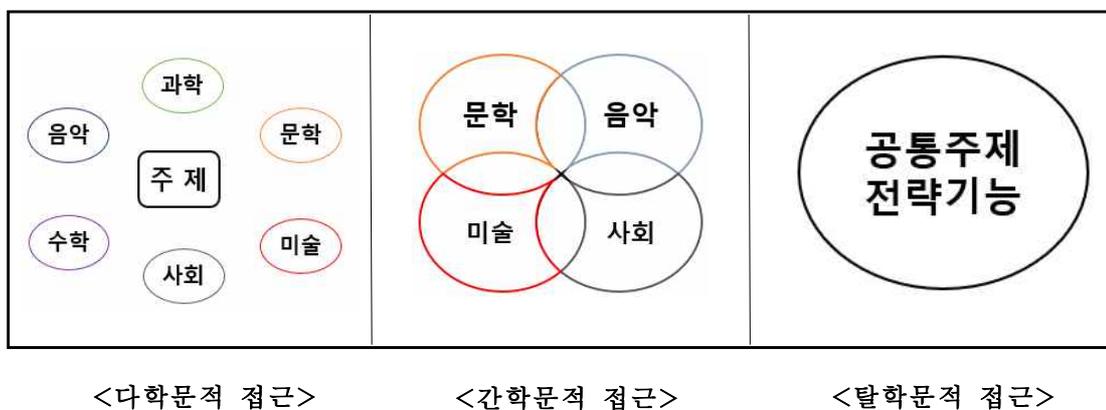
(2) 간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은 여러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개념, 주제, 탐구 방법 등을 뽑아내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학문 간 경계를 보다 약화 시킨 것으로 공통적인 속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창의·융합적 사고력과 총체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

(3) 탈학문적 통합

탈학문적 통합은 학문의 영역을 초월해 실제 생활과 관련 있는 현실적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한다. 즉, 학문이 아닌 주제 자체에 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각 학문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학습이 중심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표현활동과 문제 해결을 통해 개인의 통합적 성장을 촉진 시키는 학습자 중심의 통합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여러 지식이 독립성을 잃은 채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정 교과 지식 전문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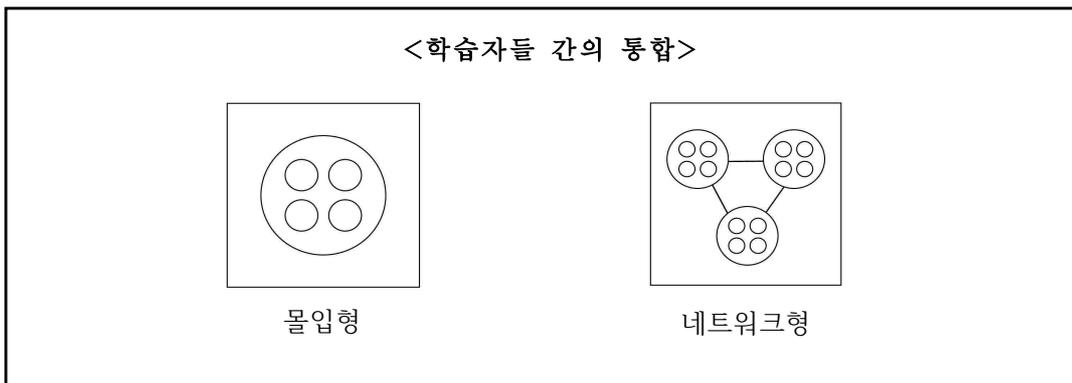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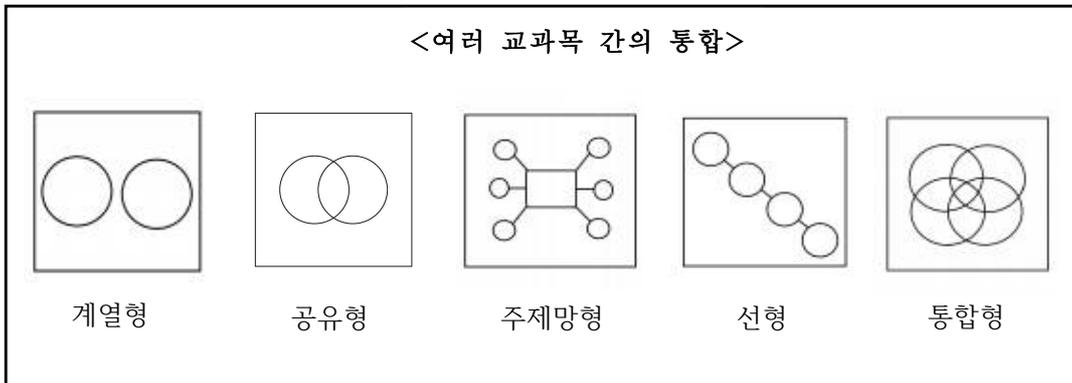
<그림 1> 드레이크의 통합 유형



2) 포가티의 유형

포가티 유형은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모형을 10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통합 방식이 다학문적, 간학문적, 초학문적으로 나누어져 접근되던 것을 종합하여 특징에 따라 단절형(Fragmented), 연결형(Connected), 둥지형(Nested), 계열형(Sequenced), 공유형(Shared), 거미줄형(Webbed), 선형(Threaded Model), 통합형(Integrated), 몰입형(Immersed), 네트워크형(Networked) 등 10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이 모형들은 특성에 따라 단일 교과목 내의 통합, 여러 교과목 간의 통합, 학습자들 간의 통합 방법 등 크게 세 단계로 구분 지어 묶을 수 있다.

<그림 2> 포가티의 10가지 통합 모형²¹⁾



21) 김재복, 전계서, p. 115.

(1) 단절형(Fragmented)

교과 간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 전통적인 모형이다. 개별 교과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모든 통합 유형 중 통합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장점으로 는 각 교과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목적을 존중해 교과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아 특정 교과를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교과의 개념을 학습자 스스로가 통합해 구축해야 하며 교과 간 단절된 학습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학습 전이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2) 연결형(Connected)

단절형과 마찬가지로 각 교과들이 독립성을 띠고 명확한 경계를 구분 짓고 있지만, 개별 교과의 주제, 개념, 기능들을 이와 관련된 또는 공통적 요소를 가진 다른 교과의 주제, 개념,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통합한다. 즉, 연결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교과의 아이디어들을 연결 지어 학습자의 전이를 촉진 시킨다. 이는 학습 내용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연결이 단순히 교과 내 통합에 그쳐 교과 간 관련성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남을 수 있다.

(3) 등지형(Nested)

각 교과의 영역 내에서 사고의 기능, 특수한 내용적 기능, 사회적 기능 등 여러 다중기능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에 목표로 두는 것으로, 숙련된 교사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목적을 하나로 통합하고 구조화해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을 보다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다. 등지형의 장점으로 는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여러 기능과 지식을 동시에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습 목표가 명확히 구조화되지 않는다면 학습의 여러 요소가 뒤섞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4) 계열형(Sequenced)

여러 교과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주제나 단원의 차례를 재구성하여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다. 개별 교과의 주제를 유지한 채 이와 연관 있는 다른 교과 내용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교과 간 통합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 내용을 계열화하여 하나의 학습활동을 통해 이와 연관된 다른 학습활동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즉, 학습의 전이가 쉽게 이루어져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재배치함에 있어 교사들 간의 지속적인 타협과 협력이 필요하다.

(5) 공유형(Shared)

두 개의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나 개념을 공유하여 포괄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슷한 개념의 수준이 아닌 서로 중복되는 개념이나 기능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음악과 미술은 예술로 사학과 철학은 인문학으로 묶을 수 있다. 중복된 개념이 통합된 수업은 전이가 활발해져 학습자의 심화 학습을 촉진해 학습능력을 상승시킨다. 이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요구되며 모형 개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6) 거미줄형(Webbed)

교과를 통합하기 위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중심주제를 두고 이와 연관 있는 다른 주제들을 확산적으로 관련짓는다. 경험이 적은 교사들도 사용하기 쉬운 단순한 모형에 속한다. 주제를 선정할 때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주제를 선택하였을 때 이는 학습의 동기화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다양한 주제들이 어떤 접점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주제를 인위적으로 관련짓고자 할 경우 교과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도 있어 설계 시 주제들의 관련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7) 선형(Threaded Model)

메타 교육과정에 기반하는 모형으로 다양한 교과 내 공통으로 포함된 사고지능을 비롯한 사회적 기능, 다중지능, 학습기능 그리고 기술 공학 등을 실로 꿰뚫어 관통하여 연결해 나가는 모형이다. 즉, 여러 교과를 여러 기능과 관련된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메타 인지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초월하는 학습의 기술과 사고 전략의 통제로 학습자들은 자기 스스로 학습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인지하여 전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사고에 중점을 두어 교과 내용 간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아 교과가 정적인 형태로 남을 수 있다.

(8) 통합형(Intergrated)

각 교과들 간에 서로 중복되는 개념과 소주제들을 추출하여 혼합하는 것이다. 공유형과 유사한 모형으로 간학문적 접근 방식에 속한다. 여러 교과의 통합을 통해 교육내용의 질적인 향상과 다양한 교과 간 상호 관련을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형 자체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9) 몰입형(Immersed)

학습자 중심의 모형으로 전체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 및 전문지식을 통해 여과되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이다. 석, 박사 연구와 같은 전문적인 자신의 분야에서 완전히 몰입하는 모형을 말한다. 즉, 관심 분야에 따른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외부 간섭 없이 학습자의 내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 본인의 판단하에 여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소한 관점이 생성될 수 있고 미흡한 완성도가 나타날 수 있다.

(10) 네트워크형(Networked)

외부에서 제공된 자원이나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학습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확장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도적인 탐색 활동을 하며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학습자가 설정한 네트워크가 관련 없는 아이디어까지 확장된다면 네트워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학습 효과를 보기 어렵다.

다음의 표는 드레이크와 포가티의 통합 유형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 드레이크와 포가티 유형의 종합

드레이크	포가티	
다문학적 접근	단일 교과목 내의 통합	단절형
		연결형
		동지형
간문학적 접근	여러 교과목 간의 통합	계열형
		공유형
		주제망형
		선형
		통합형
탈문학적 접근	학습자들 간의 통합	몰입형
		네트워크형

2. 현대음악의 이해

가. 현대음악의 개념

'현대'라는 용어는 사상을 비롯한 어떤 것이 현재와 같다고 생각되는 때를 시작점으로 잡고 그 시작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시대를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역사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서양사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현대라고 칭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음악'이라는 용어는 고전음악이나 낭만음악과 같이 특정 음악의 특징을 나타내는 양식적이거나 음악사적인 용어가 아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 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20세기의 음악들이 어떠한 맥락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아닌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며 각자만의 독립성과 독창성을 띠기 때문에 이전 시대 음악과 같이 이들을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대음악에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이는 서양사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현대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인간은 인간성에 대한 본질을 자각함과 동시에 미학(美學)에 포함되는 미적 의미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미(美)에 대한 개념도 약화 되었다. 또한 과학의 급격한 발전이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들과 함께 뒤섞여 음악과 음악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매체에 의한 음악 탐색을 가능하게 하여 소리의 생성방식 자체를 달라지게 하여 다양한 음악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현대음악은 이전에 없던 다양하고 풍성한 표현으로 20세기 정신을 대변하였고, 인간의 예술적 직관을 추상적 재료인 소리로 나타내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었다.²²⁾ 현대음악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현대음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현대음악은 현재 우리의 시대에서 탄생하는 모든 음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현대음악은 작품의 세계나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정신과 기법을 이용해 만들어진 음악을 말한다. 흔히 현대음악을 'Modern Music', 'Contempora

22) 이종구, 『20세기 시대정신과 현대음악』,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7), p. 11.

ry Music' 또는 'Music of Today'라는 말로 부르며 20세기 음악이라 총칭하고 있다.²³⁾

다음의 표는 20세기 음악에서 찾을 수 있는 미학, 양식, 수용과 영향의 측면을 종합해 세분화하여 구분한 것이다.

<표 2> 20세기 현대음악의 연도별 구분²⁴⁾

1890-1910	세기전환기라 불리는 이 시기는 전통적인 낭만주의 음악에서 20세기 음악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독일어권의 후기 낭만주의가 공존하던 시기이다.
1910-1920	본격적으로 20세기 음악이 시작된 시기로, 기존의 고전적, 낭만적 전통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드러난다. 전통 양식을 탈피한 쇤베르크의 무조음악, 스트라빈스키의 규칙성을 벗어난 리듬, 바르톡의 현대음악의 민속 어법적 해석 등이 대표적이다.
1920-1930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신음악 2세대인 헨데미트, 바일, 크세네크가 등장하며 실용음악, 기능음악 등의 새로운 미학관을 보여준다. 신음악 1세대인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양식은 12음기법과 신고전주의로 변화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30-1950	경제공황, 예술억압정책, 나치즘으로 인해 진보적이며 실험적인 음악 양식은 배제되고 전통적이고 보수적 음악 양식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졌다. 전통적이고 청중에게 친숙한 오페라, 교향곡 등의 음악이 다시 중심이 되었다.
1950-1970	억압의 시대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움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시기로 총렬음악, 전자음악과 컴퓨터음악, 우연성음악, 음향음악 등이 나타나며 또 다른 세계를 열었다.
1975~	7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실험적 시도들에 대한 청중들의 거부가 나타났다. 이에 다시 인간적이며 청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니멀 뮤직, 새로운 단순성, 신낭만주의, 인용음악, 크로스오버 등 음악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양상을 보인다.

23) 김연아, “고등학교 현대 음악 학습 지도방법 연구”, (석사학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 4.

24)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경기도: 나남, 2014), pp. 392-398.

나. 현대음악의 필요성

독일의 음악학자 뵘(K. H. Wörner)은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현대음악을 '동(同)시대의 음악'이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20세기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변혁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 물질문명은 급격한 발전은 전화, 라디오, 컴퓨터, 전기 등의 문명의 이기로 나타나 인간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1906년 시속 120km의 속도를 내는 초고속 열차의 개발은 작곡가 오네게르(Arthur Honegger, 1892-1955)가 <퍼시픽 231 열차>(Pacific 231, 1923)를 작곡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기의 발전은 구체음악(Musique Concrète)이나 전자음악을 탄생하게 했다. 이는 인간 문명의 발달에 대한 경외감이 음악, 소리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뵘이 현대음악을 '동(同) 시대의 음악'이라 칭한 것과 같이 역사적, 사회적 사건이나 사실들은 자연스럽게 음악에 수반되어 인간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간은 현대음악을 통해 사회현상, 문화, 전통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 삶 속의 다양한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음악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20세기 중엽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일어났다. 미국은 1959년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포드 재단(Ford Founddation)의 후원을 받아 '젊은 작곡가 프로젝트(Young Composers Project, YCP)를 기획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젊은 작곡가들을 공립학교에 파견하여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현대음악을 보급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젊은 작곡가 프로젝트는 곧 '현대음악 프로젝트(Contemporary Music Project, CMP)'로 이어지는데 현대음악 프로젝트는 학교 내에서의 창조적인 음악 활동 확대, 현대음악의 수용과 폭넓은 이해를 위한 전문적 음악교육의 환경 조성, 현대음악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음악 교사와 학생들의 음악적 취향의 계발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6개의 실험 연구(Pilot Project)를 실행하여 현대음악 교육에 필요한 모델이 개발되고 이를 가르치는 방법들을 소개하였다.²⁵⁾

독일의 경우 1950년대 아도르노(Theodor Wiesegrund Adorno, 1903-1969)²⁶⁾가 “학교가 아무런 고뇌 없이 현대음악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라고 말하며 학교 음악 수업을 비판함에 따라 독일의 음악 교육계는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74-1951)와 바르톡(Bela Bartok, 1881-1945)의 작품을 선두로 시작하여 여러 작곡가의 현대음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또한 아도르노는 음악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 비판적 음악교육론'을 주창하였는데 아도르노에 따르면 음악은 세계적인 언어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의식을 변혁하는 기능을 가지며²⁷⁾ 교육을 통한 인간 도야의 개념은 그 시대와 사회의 특징적인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상황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²⁸⁾ 즉,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음악교육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하고 현대 사회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과 가장 가깝고 적합한 소재의 음악은 현대음악일 것이며 이는 현대음악 교육의 당위성에 큰 힘을 실어 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음악 교육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음악 교육학자 빈코스키(B.Binkowski), 군트라크(W.Gundlach), 하인트리히스(H.A.Heindrichs) 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상의 변화나 과학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철학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 및 다른 예술을 비롯한 전자매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현대음악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며 학교 음악교육이 관습적인 음악만을 위한 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했다.²⁹⁾

음악 수업 시 현대음악 사용의 당위성을 정리해본다면, 첫째, 현대음악은 음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음악을 경험함으로써 폭넓고 개방적인 음악적 사고를 길러준다. 현대음악이 과거의 음악으로부터 발전해온 것처럼 미래의 음악 또한 현재의 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음악이 지니는 실험적 특성 및 독특한 표현 기법

25) 이흥수,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 376.

26)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 음악학자로 비판이론(Kritische Theorie)학과라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학파(The Frankfurt school)의 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

27) 송진범, 『음악교육학』, (서울: 학문사, 2000), p. 25.

28) 송진범, "아도르노의 사회비판적 음악교육론 연구", (박사학위, 단국대학교, 2003), p. 20.

29) 민경훈, "현대음악 학습 방법 연구", 음악이론연구 4,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1999), pp. 291-326.

과 양식은 학습자의 창의성 계발에 있어 교육적 가치가 있다. 전통적인 음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법과 기능을 직접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창의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음악이므로 이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대음악은 사회문화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현대음악에서 나타나는 동시대 특유의 삶의 형태를 통해 학습자는 현대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현대음악 교육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음악에 치우쳐져 있어 현대음악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현대음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현대음악이 더욱 교실 안으로 들어와야 함을 시사한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현대음악에 대한 전문성과 체계적 이해를 갖추고 현대음악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2차 세계대전의 이해

가. 2차 세계대전의 배경

1)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

베르사유 조약³⁰⁾이란 독일의 패전을 알리며 1918년 11월 11일을 기점으로 휴전에 돌입한 제1차 세계대전³¹⁾을 종결시키기 위해 1919년 6월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서 맺어진 평화 협정을 말한다. 이 조약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독일에게 돌리는 것으로 영토의 조정, 막대한 배상금, 군사 및 경제적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

30)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 있는 '거울의 방(Hall of Mirror)'에서 조약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31)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4년동안 지속된 최초의 세계대전

재들이 독일에게 가해졌다.

독일은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을 프랑스에 반환하고 외펜(Oeffen)과 말메디(Malmedy)를 벨기에에 양도하였으며 주민투표의 결정으로 덴마크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독일 북부지역(Schleswig)들이 덴마크의 영토가 되고 독일 동부의 지역들(Upper Schlesien)은 재탄생 된 폴란드에 귀속, 단치히(Danzig)는 폴란드의 해양 접근권과 독일 제국과의 분리를 위해 자유 도시(Free City)로 지정되었다. 이 영토 조정에서 독일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폴란드를 위해 약 15%의 영토와 약 10%의 국민을 잃었다.³²⁾ 이와 함께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전쟁의 프랑스와 벨기에를 비롯한 피해 국가들에게 지불 해야 했는데 1921년 결정된 그 금액은 1,320억 제국 마르크에 달했다. 이뿐 아니라 전쟁의 주범으로 규정지어진 독일의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독일은 전쟁에 사용된 대포5,000문과 비행기 2,500대를 비롯한 장갑차와 함선들을 연합국에 양도해야 했고 군대의 인원은 공군이 제외된 10만 명으로 제한되었으며 항공, 전차, 잠수함의 개발과 같은 방위산업 또한 전면 금지되었다.

당시의 바이마르 공화국³³⁾은 전쟁 직후 국가 재건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 하였으나 베르사유 조약에 의한 배상금과 여러 제재가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은 끝없이 터져 나왔다. 평화조약이었던 베르사유 조약은 결국 독일을 국가 유지가 불가능한,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나치의 부상과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

32) 임상우,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과 유럽평화의 이상", 통합유럽연구 9 no.2,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2018), pp. 1-30.

33)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에 수립되어 1933년까지 유지된 독일 공화국을 부르는 말로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의해 소멸되었다.

2) 대공황(Great Depression)

'검은 목요일'로 불리는 1929년 10월 24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1923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특수으로 인해 경제적 호황을 경험했다. 이 시기의 미국은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과 동떨어진 위치에 있던 미국이 전쟁 중인 유럽 국가들에게 전쟁물자나 식량을 공급하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미국의 모습은 자유 방임 자본주의가 부정당할 정도의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주식 시장은 무너져 그 가치를 잃었고 수 천여 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하였으며 산업의 붕괴로 노동자 1/4이 실업자로 전락함에 따라 자살자가 넘쳐났다.

이런 대공황은 '보이지 않는 손'을 따르며 고전적 입장을 취한 허버트 후버(Herbert Clark Hoover, 1874-1964)³⁴⁾를 밀어내고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를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어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추구하는 뉴딜 정책³⁵⁾과 공항, 철도, 제방, 교량, 도로 등의 국가주도 공공산업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피해 국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초기부터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1924년 '도스 안(Dawes Plan)³⁶⁾'을 계기로 독일은 배상금을 미국에서 차입한 자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조정되었는데 이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한 미국이 해외대부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 독일경제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³⁷⁾

당시 극심한 자본 부족 상태였던 독일은 유입된 미국 자본에 의한 경제의 회복을 보여주었다. 즉, 독일은 미국 자본과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상태였다. 베르사유 체제 아래에 있던 독일은 이미 미국보다 2년 빠른 1927년부터 대공황을

34) 31대 미국 대통령.

35) 대공황 극복을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가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으로 농업 조정법(AAA), 산업 부흥법(NIRA),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VA)가 대표적이다.

36) 1924년 미국 재무장관 도스(Charles Gates Dawes, 1865-1951)가 주재한 위원회가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던 독일의 배상금 조건을 완화 시킨 계획안.

37) 이현대, "독일 대공황(1928~32년)의 원인 재론", 經商論叢 38 no.3, (한독경상학회, 2020), pp. 21-38.

겪고 있었으며 이는 1932년까지 지속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독일의 공업생산은 1927년 11월부터 42%, 수출은 54%, GNP는 36% 감소하였다.³⁸⁾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악재까지 맞닥뜨린 독일은 유입되었던 미국 자본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며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3> 무료급식소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 실업자들³⁹⁾



3) 극단적 민족주의의 등장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및 동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던 추락한 경제와 혼란스러운 사회적, 정치적 상황은 그들의 배타적 민족주의 부활의 방아쇠를 당겼고 결국 민주주의 체제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파시즘 정치체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38) 이현대, 상계서, pp. 21-38.

39)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

폭등한 물가와 실업자의 증가로 이탈리아는 점점 사회주의 혁명에 잠식되며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이 격렬히 전개되었다. 이탈리아는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연합국의 푸대접을 받으며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해 분노와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런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1883-1945)는 1919년 3월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전투 파쇼(il Fasci Italiani di Combattimento)'를 창단하였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1921년 국가 파시스트당을 이루게 된다. 1922년 국가 파시스트당은 무솔리니 내각을 수립하고자 '검은 셔츠단'⁴⁰⁾을 앞세워 로마로 진군하였는데 당시 로마의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Vittorio Emanuele, 1869-1947)는 적극적 저항 없이 물러나 무솔리니는 총리가 되고 파시스트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해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1932년 독일은 실업자의 수가 60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노동인구 1/3에 해당하는 거대한 수치였지만 당시의 바이마르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이런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독일 내부에서는 재건사업과 배상문제가 꾸준히 정치적 논쟁거리로 떠올랐고 1929년 독일인들은 전쟁배상금 지급을 반대하는 법의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였는데 투표 결과 약 95%가 반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당시 군소정당에 불과하던 '나치당(NSDAP)'이 급부상하였다.⁴¹⁾

나치는 집권 이전부터 독일의 실업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⁴²⁾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난국을 맞이한 독일인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지고 다가왔고 결국 1933년 1월 30일 나치가 집권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나치는 베르사유 조약을 전면 부정하며,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고 재군비를 추진한다.

40) 무솔리니가 결성한 파시스트당 산하의 준군사조직.

41) 임상우, 전계서, pp. 1-30.

42) 이진모, "나치의 일자리 만들기와 재무장 : 그 신화와 비극", 역사비평 no.87, (역사비평사, 2009), pp. 109-132.

나. 2차 세계대전의 전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폴란드에 귀속된 '폴란드 회랑(Polish Corridor)⁴³⁾'의 반환을 폴란드에 요구하였으나 폴란드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는데 이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 직후인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이에 폴란드와 동맹 조약을 맺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을 향한 선전 포고를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폴란드 서부에서는 독일이 동부에서는 소련의 매서운 기세에 폴란드는 채 버티지 못하고 수도 바르샤바가 불과 3주 만에 함락된다.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소련은 발트 3국을 점령한다. 이어 독일은 프랑스를 침공하여 파리를 점령하였고 이 무렵 이탈리아도 추축국⁴⁴⁾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1940년 9월 독일·일본·이탈리아는 연합국에 대항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삼국 군사 동맹(Tripartite Pact)'을 체결한다. 1941년 6월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행해 소련을 침공하지만 실패로 끝이 났다. 같은 해인 1941년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고 선전 포고 없이 진주만을 습격해 미국을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이 '태평양 전쟁(Pacific War)⁴⁵⁾'을 일으킨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무대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추축국에 유리하던 전쟁은 1942년 미국이 일본과의 '미드웨이 해전(Battle of Midway)'을 승리로 이끌며 연합국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소련은 동부 스탈린그라드 전투⁴⁶⁾에서 독일군을 궤멸시켰고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 또한 이탈리아에서

43)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분리된 상태였던 독일 본토와 동프로이센의 연결을 위해서 폴란드 회랑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44) 연합국에 대항한 국가들의 동맹.

45)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과 연합국의 전쟁.

46)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소련의 스탈린그라드(現 볼고그라드) 지역에서 벌어진 소련과 추축국 간의 전투이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참혹한 전투로

무솔리니 정권을 몰락시키며 연합국의 기세를 몰아갔다. 1944년 6월 연합국은 '아이젠 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1890-1969)⁴⁷⁾'의 지휘 아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독일을 격파하고 빼앗겼던 파리를 탈환해 프랑스를 해방시킴으로써 연합국의 승리를 완전히 굳히게 되었다. 이후 연합국이 베를린까지 진격하며 1945년 5월 3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였다. 일본은 '포츠담 회담⁴⁸⁾'의 권고를 무시하였고 그 결과, 결국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길었던 6년간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다.

라. 2차 세계대전이 음악가들에게 끼친 영향

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사회, 문화, 정치를 비롯한 생활양식과 사고를 크게 바꿔놓으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이 영향에서 음악가들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에서의 나치즘(Nazism), 파시즘(Fascism)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Bolshevik Revolution)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해 유럽의 수많은 음악가들이 포로로 잡혀 수용소 생활을 하거나 나치의 정치적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나치가 추구하던 음악은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과 같은 낭만적인 독일 고전 음악이었으며 불협화음적, 무조적, 12음적, 무질서적, 지식계급적, 유대적, 재즈적, 좌파적인 음악은 배척되었다.⁴⁹⁾ 나치가 요구하던 음악과 반대되던 음악들은 모두 현대음악이라 불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음악 양식들로 이 시기의 작곡가들은 음악 활동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나치들은 그들의 정책 선전 도구로 음악을 선택하였고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기록되고 있다.

47) 유럽연합군 총사령관.

48) 1945년 독일의 포츠담 지역에서 성사된 연합국 정상 회담으로 이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이 권고되었다.

49) Donald J. Grout,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하)』, 민은기 외 역(서울: 이앤비플러스, 2007), p. 324.

나치의 입장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여겨졌다. 나치의 '낭만적' 음악관은 “그 옛날 좋은 시대를 반영”하고, “그 옛날의 좋은 분위기와 하모니가 아직도 있는 듯이 보여주는” 성스러운 음악이어야 했다. 그러나 현대음악은 조성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낭만적이지도 않았고 모순된 현실을 역설적으로 깨우쳐주는 음악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치가 선전하는 경건하고 낭만적인 음악관에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⁵⁰⁾

1933년 당시 독일의 최고 음악 기관인 프로이센 아카데미의 교수로 있었던 쇤베르크는 나치의 공공기관 유대인 퇴출 정책에 의해 사임하게 된다. 헝가리인 벨라 바르톡(Bela Bartok, 1881-1945)은 나치 아래 있던 헝가리⁵¹⁾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 고국을 등지며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 이들과 달리 순수한 독일인이던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1963)는 나치와 타협하여 독일에서의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자 했으나 단지 그의 음악이 '독일적'이지 않다는 나치의 비난과 압박을 당했다. 한스 아이슬러(Hanns Eisler, 1898-1962)는 유대인이자 동시에 나치의 제거 대상이었던 공산주의자였던 탓에 현상금 수배가 걸릴 정도의 직접적 위협을 받았다. <서푼짜리 오페라>(Die Dreigroschen-Oper)로 유명한 바일(Kurt Weill, 1900-1950) 또한 유대인이었으며 사회 비판적 음악으로 인해 탄압을 받았고 오스트리아 작곡가 크세네크(Ernst Křenek, 1900-1991)은 1933년 나치의 집권 이후 작품에 흑인이 등장하고 재즈 음악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금지 당한다.⁵²⁾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고국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음악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수많은 학자들은 미국에 도착하여 국가 최고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자리 잡아 선진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파하였다. 경제적 상황이 좋았던 미국은 망명 학자들에게 좋은 환경이었으며 이들은 정부와 재단으로부터 부족함 없는 후원을 받으며 큰 성과를 냈다. 당시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대학의 역사와 전통에 있어 훨씬 뒤 처진 상태였지만 이들의 유입으로 유럽식 특히 독일의 대학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미국의 예술, 문화, 정치, 인문, 자

50) 이경분, 『망명음악, 나치음악 : 20세기 서구 음악의 어두운 역사』, (서울: 책세상, 2004), pp. 146-150.

51) 헝가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도와 전쟁에 참여했다.

52) 이경분, 상계서, pp. 27-32.

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은 급속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4. 바르샤바의 생존자 작품 이해

가. 쇤베르크의 생애 및 작품

1) 생애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의 음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논쟁적 담론을 파생시키며 20세기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⁵³⁾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쇤베르크는 보통의 음악가들과 다르게 정규적이고 공식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주로 독학으로 음악을 배워나갔는데 청소년기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만난 '알렉산더 켈린스키(Alexander von Zemlinsky, 1871-1942)⁵⁴⁾'로부터 3개월 동안 배운 대위법이 쇤베르크의 인생에서 받은 음악교육의 전부였다. 그의 작품 '구레의 노래(Gurre-Lieder)'를 인상 깊게 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는 쇤베르크에게 슈테른 음악학교의 교수직을 제안해 그곳에서 일하게 되지만 이내 다시 빈으로 돌아간다. 이후 1904년 알반 베르크(Alban Berg, 1885-1935)와 안톤 베버른(Alban Berg, 1883-1945)을 만나 제자로 받아들이며 사제 관계를 맺었는데 이들 세 사람은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 '제2의 비엔나 악파⁵⁵⁾'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1918년 이들 세 사람은 함께 '사적 음악 연주협회'(Verein für Musikalische Privataufführungen)를 창설해 당시 청중들의 현대음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자신들의 음악을 포함한 바르톡(Bela Bartok), 코른골드(Erich Wolfgang Korngold), 말러(Gustav Mahler),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등과 같은 현대적 작품들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많은 현대음악을 선보이며 현대음악 전파에 기여했다.

쇤베르크는 개인전을 열 정도로 미술 활동도 즐겼는데 특히 표현주의 회화⁵⁶⁾에

53) 김경화, "쇤베르크와 전통", 서양음악학 14 no.3, (한국서양음악학회, 2011), pp. 277-314.

54)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쇤베르크와 마찬가지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다.

55) 고전시대에 하이든·모짜르트·베토벤을 칭하는 말인 비엔나 악파에 빗대는 말이다.

56) 주관성을 중요시 여기며 감정의 직접적 표현을 강조하는 20세기 미술사조.

큰 관심을 두었다. 대표적 표현주의 화가인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와 가깝게 지냈으며 이는 쇤베르크의 음악에도 역동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치의 집권은 유대인이던 쇤베르크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1933년 10월 쇤베르크는 반유대인 정책들과 예술가들에 대한 탄압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미국에 도착한 쇤베르크는 왕성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다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의 교수직을 마지막으로 1951년 작고한다.

2) 작품경향

쇤베르크의 음악 양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성적 시기인 제1기, 무조음악(Atonal Music)이 등장한 제2기, 12음 기법이 나타나는 제3기로 구분된다.

(1) 제1기 (1899-1907)

이 시기는 독일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로 쇤베르크는 브람스, 말러, 슈트라우스, 바그너와 같은 작곡가의 음악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조표를 사용한 조성적 음악이 주가 되었으나 복잡한 전조와 불협화음 그리고 반음계적인 화성 어법이 나타나며 보다 느슨해진 조성을 느낄 수 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시인 리하르트 데멜(Richard Dehmel, 1863-1920)의 시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된 현악 6중주 편성의 실내악 『정화된 밤(Verklärte Nacht), op. 4, 1899』 과 독창자, 합창단, 해설자가 필요한 대규모 관현악 작품인 『구레의 노래(Gurre-Lieder), 1901』 가 있다.

(2) 제2기 (1908-1922)

표현주의 사조를 대표하는 시기로 『현악사중주 no.2, op. 10, 1908』의 마지막 악장과 함께 무조음악이 최초로 등장한다. 불협화음과 협화음의 구별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 형식과 함께 기능화성 체계가 무너졌다. 이처럼 자유롭게 사용되는 불협화음을 통한 조성의 해체를 쇤베르크는 '불협화음의 해방'이라 칭했다⁵⁷⁾. 표

현주의 음악은 인간 내면의 한 부분인 소외된 주관성을 강조하며 이를 음악으로 표현했는데 전통적인 미를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왜곡을 통한 표현으로 청중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는 소규모의 성악작품이 많으며 대표적 작품으로는 '슈테판 게오르게(Stefan George, 1868-1933)'의 시를 사용한 연가곡 『공중정원의 책(Das Bush der hangenden Garten), op. 15, 1909』 과 4악장의 모노드라마 『기대(Erwartung) ,op. 17, 1909』 , 'Sprechstimme'가 사용된 멜로드라마 『달에 홀린 뻬에로(Pierrot Lunaire) op. 21, 1912』 가 있다.

(3) 제3기 (1923-1932)

12음 기법이 등장하는 시기로 이 기법은 반음계의 12음이 모두 동등하게 사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조성이 존재하지 않아 질서가 없는 무조음악에 체계를 부여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이 기법이 적용된 음악을 음렬 음악이라 부른다. 처음 12개의 기본 음렬(Original)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며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음렬은 역행 음렬(Retrograde), 전위 음렬(Inversion), 역행 전위 음렬(Retrograde Inversion)로 하나의 기본 음렬을 통해 파생될 수 있는 음렬의 개수는 48가지이다. 이 시기의 작품은 『5개의 피아노 소품(Suite for Piano), op. 25, 1923』 을 비롯해 대편성 작품인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Variations for Orchestra), op. 31』 , 『모세와 아론(Moes und Aron)』 그리고 미국에서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op. 36, 1936』 , 『바르샤바의 생존자(A Survivor from Warsaw), op. 46, 1947』 , 『현악사중주 no.4, op. 37, 1936』 등이 있다.

57)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경기도: 나남, 2014), p. 402.

나. 바르샤바의 생존자 작품 개요

1) 바르샤바의 생존자 작품 배경

나치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이전인 1933부터 '강제 수용소(Concentration Camp)'를 짓기 시작하여 전쟁이 끝나는 1945년까지 유지하였다. 이 수용소의 초기 목적은 나치 체제에 반하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을 사회와 분리시키기 위한 용도였으나 나치들은 2차 세계대전 도중 '최종해결(Final Solution)⁵⁸⁾'을 위해 이 수용소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수용의 대상은 유대인을 비롯한 소련군 전쟁 포로, 집시(Gipsy), 정치범, 장애인, 동성애자, 예술가 등의 나치의 민족 사상과 반대되는 모든 이들로, 나치는 이들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대학살극을 펼쳤다. 나치는 빠르고 효율적인 대량살상을 위해서 독가스를 이용하였는데 1941년 9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600명의 소련군 전쟁 포로와 250명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스학살 실험을 시작으로 점점 절정에 달해 하루 최고 6,000명의 수감자들이 학살되는 경우도 있었다⁵⁹⁾.

원베르크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인 1947년 73세의 늦은 나이로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쿠세비츠키 음악재단(Koussevitzky Music Foundation)의 위촉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만행을 묘사한 것으로 유대인이었던 그에게는 자신의 민족이 겪은 처절한 비극과 슬픔을 그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유대인이자 작곡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를 세상에 알리기로 다짐했을 것이다.

58) 나치의 민족 말살 정책을 의미한다. 총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었다.

59) 홀로코스트 백과사전(<https://encyclopedia.ushmm.org/>).

2) 바르샤바의 생존자 작품 구성

『바르샤바의 생존자』는 멜로 드라마(Melo Drama) 성격을 갖는 작품으로 나레이터(Narrator), 남성 합창(Male Choir) 그리고 오케스트라(Orchestra)로 만들어진 칸타타이다.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 나타나는 표현주의적 음악은 고통과 추악한 현실을 표현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또한 바리톤의 나레이터가 'Sprechstimme⁶⁰⁾' 기법을 사용하여 말하는 가사는 음악과 섞여 현실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텍스트는 쇤베르크가 직접, 간접적으로 받은 정보를 근거로 해서 직접 작성하였는데⁶¹⁾ 쇤베르크가 미국에 있던 1947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수용소에서 탈출한 한 젊은이가 찾아와 당시의 이야기를 쇤베르크에게 들려주었고 쇤베르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사를 쓴 것이다.

바르샤바의 생존자는 작곡이 완성된 이듬해인 1948년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알부케르크 오케스트라(Albuquerque Civic Symphony Orchestra)와 지휘자 커트 프레데릭(Kurt Frederick)에 의해 초연되었다. 2관 편성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악기는 다음과 같다.

60) 말하는 선율이라는 뜻으로 말과 노래의 중간 형태로 부르는 성악의 기법을 칭한다.

61) 이경분,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와 망명음악”, 낭만음악 5 no. 38, (낭만음악사, 1999), pp. 5-38.

<표 3> 바르샤바의 생존자 오케스트라 편성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플루트 2 (피콜로)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3 트럼본 3 튜바 1	실로폰 벨 차임 (군대 드럼, Military Drum) (베이스 드럼, Bass Drum) 팀파니 심벌즈 트라이앵글 탬버린 탐탐 캐스터네츠	제1바이올린 10 제2바이올린 10 비올라 6 첼로 6 콘트라베이스 6 하프

3) 바르샤바의 생존자 작품 분석

『바르샤바의 생존자』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체 마디는 99마디로 제1부분(1-11), 제2부분(12-80), 제3부분(81-99)로 나뉘며 작품의 양식은 무조음악과 12음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데 이 중 1, 2부분은 무조음악이 마지막 3부분에는 12음 기법이 나타난다. 나레이션은 줄곧 영어와 독일어가 번갈아서 사용되다 제3부분에서 히브리어로 한 남성합창으로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짧지만 밀도 있게 구성된 음악과 텍스트에 의한 직접적 감정표현과 사실적 묘사를 나타냄으로써 짧은 연주시간에서 처참한 비극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라이보 비츠(René Leibowitz, 1913-1972)⁶²⁾’는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공연한 후 한 관객이 자신에게 다가와 여러 작곡가들이 전쟁과 관련된 많은 작품을 썼지만, 쇤베르크의 이 8분짜리의 현대음악은 지금껏 그 어떤 곡들보다도 많은 것들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⁶³⁾

62)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지휘자로 1949년 파리에서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공연하였다.
 63) 민경훈, "음악교사를 위한 현대음악 지도방법 연구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본보기로", 음악과 민족 29 no. 29, (민족음악학회, 2005), pp. 277-299.

<표 4> 바르샤바의 생존자 전체 구성

	제1부분	제2부분	제3부분
마디	1-11	12-80	81-99
구분	기악적 서주	나레이션	기도문 합창
언어	-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양식	무조음악	무조음악	12음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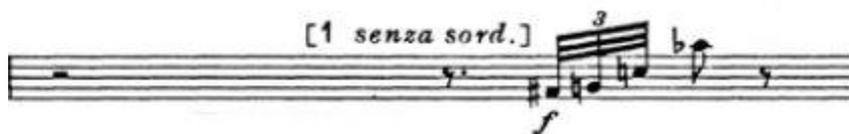
(1) 제1부분 (1-11)

제1부분은 나레이션에 의한 서술 이전의 순수한 기악적 서주부로 상징적 주제를 제시하며 작품 전체의 내용을 암시하고 불협화음을 통해 학살에 대한 공포와 긴장, 불안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날카로운 트럼펫의 음색에 의한 상행 모티브(F#-G-C-A b)는 마디 1, 마디 25, 마디 32 등에 나타나며 긴장감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등장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악보 1> 트럼펫 주제 동기, A Survivor from Warsaw, Op.46, 마디 1



<악보 2> 트럼펫 상행 모티브 I, A Survivor from Warsaw, Op.46, 마디 25



<악보 3> 트럼펫 상행 모티브 II, A Survivor from Warsaw, Op.46, 마디 32



(2) 제2부분 (12-80)

서주가 끝나고 나레이션이 등장하는 제2부분은 마디 12부터 80까지 가사를 'Sp rechstimme' 기법을 사용해 서술적 형태로 풀어나간다. 텍스트는 크게 보고적 성격과 합창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2 부분은 보고적 성격으로 “내”가 일인칭 시점으로 가스실로 수송되기 위하여 집합장소에 있었으나 일련의 사건들로 결국 살아남는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가사는 총 세 언어로 불리는데 화자에 의한 중립적 언어는 영어로, 게토 독일군의 말은 독일어로 그리고 마지막 합창은 전부 히브리어로 불린다. 음악도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2 부분은 화자가 정해진 리듬과 암시된 음높이에 맞춰 에피소드를 진행하는데 유리한 자유 무조음악(Freitonality)으로 되어 있다.⁶⁴⁾

<악보 4>는 전체적인 가사의 의미를 효과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사의 내용에 따라 리듬 및 빠르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디 14부터 마디 18 까지 나레이터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가사의 서문을 열며 짧은 다섯 마디 동안 템포 '♩=80'으로 시작해 '♩=112'까지 급박하게 변하는데 이는 앞으로의 이야기의 거대한 서막이 시작함을 암시한다. 이후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회상하며 이야기를 서술하는 마디 19부터는 빠르기가 급격히 느려져 회상하는 모습에 걸맞게 템포 '♩=52'로 마디 24까지 진행된다. 마디 25는 학살 당일의 묘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서술되는 부분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며 본래의 템포 '♩=80'으로 돌아온다.

64) 이경분, 전계서, pp. 5-38.

<악보 4> 나레이터 부분 I, A Survivor from Warsaw, Op.46, 마디 12-19

12 *Nar.* I cannot remember ev'rything! I must have been un - conscious[most]of the time ..! I re-

13

14 **accelerando e cresc. poco a poco** ♩ = 80

15 ♩ = 90 member on-ly the gran - di-ose mo - ment when they all started to sing, as

16 ♩ = 100

17 ♩ = 112

18 **a tempo** (♩ = 52) **meno mosso**

19 if pre - ar-ranged, the old pray - er they had neg-lect-ed for so man-y

<악보 5> 나레이터 부분 II, A Survivor from Warsaw, 마디 20-25

20 years— the for - got - ten creed!

21

22 **a tempo** (♩ = 52) But I have no re-col-lection how I got un-derground to live in the sewers of Warsaw for

23

24 [a tempo] (♩ = 52) **poco rit. a tempo** (♩ = 80) so long a time... The day be-gan as u-su-al. Ro-

25

텍스트 원문⁶⁵⁾

I cannot remember evrything ! I must have been unconscious of the time...! I remember only the grandiose moment when they all started to sing, as if prearranged, the old prayer they had neglected for so many years—the forgotten creed!

But I have no recollection how i got underground to live in the sewers of Warsaw for so long a time, , ,

The day began as usual. Reveille when it still was dark. Get Out!

Whether you slept or worries kept you awake the whole night.

You had been separated from your children, from your wife, from your parents. You don t Know what happened to them.. How could you sleep?

The trumpets again. “Get out! The sergeant will be furious!” They came out; some very slowly, the old ones, the sick ones, some with nervous agility. They fear the sergeant. They hurry as much as they can.

In cain! Much too much noise, much too much commotion! And not fast enough!

The Feldwebel shouts, , ,Achtung! Still jestanden! Na wird’s mal, oder soll ich mit dem Jewehkolben nachhelfen? Na jut; wenn ihr’s durchaus haben wollt!

The sergeant and his subordinates hit everyone: young or old, strong or sick, guilty or innocent. . .

65) 황미경, “망명 작곡가 쇤베르크의 삶과 음악언어”, 獨逸學研究 no,20,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4), pp. 65-93

It was painful to hear them groaning and moaning.

I hear it though I had been it very hard, so hard that I could not help falling down. We all on the ground who could not stand up were then beaten over the head. . .

I must have been unconscious. The next thing I heard was a soldier saying. “They are all dead!”

Where upon the sergeant ordered to do away with us.

There I lay aside half conscious. It had become very still—fear and pain.

—Then I heard the sergeant shouting, , , Abzählen!

They started slowly, and irregularly; one, two, three, four, , ,Achtung!

The sergeant shouted again, , ,Rascher! Nochmal von vorn anfangen!

In einer Minute will ich wissen wieviele ich zur Gaskammer abliefern!

Abzählen!

They began again, first slowly: one, two, three, four, became faster and faster. so fast that it finally sounded like a stampede of wild horses, and all of a sudden, in the middle of it, they began singing the

SCHeMAYISROL

한국어 번역⁶⁶⁾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단지 그 위대한 순간뿐이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옛 기도를 부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신앙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바르샤바의 하수관에서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했다. 동트기 전의 기상. 그들이 잠을 자고 있든, 걱정근심으로 뜯 눈으로 밤을 지새웠든 상관없이 밖으로 나가야 했다. 아이들과 부인 그리고 부모로부터 분리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던 말인가?

그들은 서로 소리쳤다. 밖으로 나와, 하사관이 화내겠다.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늙은이와 병자들은 천천히 나왔고, 빠른 걸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병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두들 최선을 다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엄청난 소음! 정신없이 분주한 움직임, 하지만 아무리 그래 봐야 소용없었다!

Feldweibel(하사관)이 고함쳤다. Achtung! (정신집중!) Still gestanden! (꿈쩍 말고 섰!) Na wird's mal, (야, 날 새겠다.) Oder soll ich mit dem Jewehkolben nachhelfen? (아니면 내가 총개머리로 도와줄까?) Na jut(그래, 좋아); wenn ihr's durchaus haben wollt!(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한다면 말야!)

하사관과 그의 졸병들이 수용인들을 마구 때렸다. 젊었거나, 늙었거나, 강자든 약자든 상관없이 그리고 잘못이라 있건 없건 가리지 않고 때렸다- 울부짖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듣기에도 끔찍했다.

나는 몹시 얻어맞았지만 -너무 맞아 쓰러졌으나 주위의 소리를 들을 수

66) 황미경, 상계서, pp. 65-93.

있었다. 쓰러져 일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머리통을 얻어맞았다.

나는 아마도 정신을 잃었나보다. 그리고 그 다음 한 군인이 모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와 우리를 치우라는 하사관의 명령을 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반의식을 잃은 채 - 가장자리에 누워있었다. 주위가 아주 조용해졌다.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하사관이 Abzählen!(점호) 하며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며 번호를 세기 시작했다.“Achtung! (정신집중!)하고 하사관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Rascher! (더 빨리) Nochmal von vorn anfangen! (처음부터 시작). In einer Minute will ich wissen wieviele ich zur Gaskammer abliefern! (몇 놈이나 가스실에 보낼 수 있는지 일분만에 알아야겠어!) Abzählen!(점호!)

그들은 다시 하나, 둘, 셋, 넷하며 세기 시작했다. 처음엔 느린속도로 시작했으나 갈수록 점점 빨라져 마침내 야생마들의 거친 말굽소리처럼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한꺼번에 - 아주 갑자기, 그것도 한 도중에 - 그들은 쉼없이 이스라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의 신은 영원하고 유일하시다. 그의 왕국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될지어다. 너는 너의 영원한 신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지어다. 내가 오늘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너는 마음에 담아두고 너의 아이들에게 가르칠지어다. 집에 앉아 있거나 길을 가거나, 눕거나 서거나, 아이들에게 이를 얘기할지라.

마디 32-34에서는 마디 1의 트럼펫으로부터 제시된 동기가 현악기(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목관악기(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금관악기(호른, 트럼펫) 등의 다양한 악기군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악보 6> 변형된 트럼펫 동기 I, A Survivor from Warsaw, Op.46, 마디 32-33

32 33
Più mosso **a tempo** (♩ = 80)

Hns. 1,2 3,4
 Trp. 1
 Mil. Dr.
 Nar.
 Vi. I, II
 Va.
 Vcl.
 Cbs.

(1) *f* *a 4*
[f] *3*
colla parte
ff *ff*
TUTTI
 Vi. I *col legno battuto* non div. The trumpets a-gain. "Get out! The sergeant will be
 Vi. II *pizz.* non div. **TUTTI** *col legno battuto* non div. *simile* *colla parte*
 Va. *simile* *colla parte*
 Vcl. *TUTTI* non div. *pizz.* *simile* *colla parte*
 Cbs. *[TUTTI] arco* *ff* *3*

<악보 7> 변형된 트럼펫 동기 II, A Survivor from Warsaw, Op.46, 마디 34

(3) 제3부분 (81-99)

마지막 제3부분은 죽음 직전 히브리어로 합창 '슈마 이스라엘(Sh'ma Yisroel)'을 부르며 구원을 기도한다. 이는 제2부분의 서술적 나레이션과 대조되는 부분으로, 극적이며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디 71-80 사이에 표현되는 가사의 내용은 독일군이 학살 직전 가스실에 보낸 수감자들의 수를 세며 그것을 보는 수감자들의 극도의 공포감을 말하고 있다. 마디 81에서 남성합창이 등장하기 바로 전인 이 구간은 빠르기와 셈여림,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리듬 변화를 통해 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10마디의 짧은 구간이지만 셈여림은 pp에서 출발하여 fff로 도달하며 급격하게 커지고 빠르기도 또한 '♩=80'에서 '♩=160'로 크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71 마디 운음표에서 시작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리듬은 점점 짧게 분할되어

4분음표, 8분음표, 셋잇단음표로 변해가고 합창이 불리기 직전에는 16분음표의 나열로 극도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8> Vcl, Cbs 리듬, A Survivor from Warsaw, Op.46, 마디 71-80

71 *a tempo* (♩ = 60) 72 *accel. e cresc. poco a poco* 73 (♩ = 70)

74 (♩ = 80) 75 (♩ = 90) 76 (♩ = 100)

77 (♩ = 110) 78 (♩ = 124) 79 (♩ = 111) *fff*

80 (♩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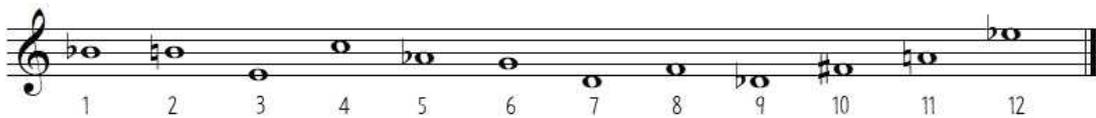
Vcl.
Cbs.

<표 5> 마디 71-80의 표현요소들

마디	셈여림	빠르기	리듬
71		♩ = 60	온음표
72	pp	♩ = 60	4분음표, 8분음표
73		♩ = 70	8분음표, 셋잇단음표
74		♩ = 80	셋잇단음표
75		♩ = 90	셋잇단음표
76		♩ = 100	셋잇단음표, 16분음표
77		♩ = 110	16분음표
78		♩ = 124	16분음표
79	fff	♩ = 144	16분음표
80		♩ = 160	16분음표

쇤베르크는 처음 12음 기법을 발견했을 당시 자신의 작품에서 12음의 기본 음렬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하게 작곡하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12음 기법이 적용된 마지막 합창 부분에서는 누군가 알아채라는 듯이 12음의 기본 음렬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유대인들이 겪는 고난에서의 구원을 뜻하는 '슈마 이스라엘(Sh'ma Yisroel)' 찬송을 나치가 억압한 12음 기법으로 작곡함으로써 자신이 유대인이자 현대음악 작곡가임을 고백하며 나치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⁶⁷⁾

<악보9> 합창의 기본 음렬



67) 이경분, 전계서, pp. 5-38.

<악보 10> 나열된 합창 음렬, A Survivor from Warsaw, Op.46, 마디 80-86

Musical score for voice part of 'A Survivor from Warsaw, Op. 46' by Krzysztof Penderecki. The score shows measures 80 through 86. Measure 80 starts with a piano (p) dynamic and a fermata. The lyrics are: 'Sh'ma Yi-s-ro-tl A-dō-noy e-l-ō-he-noo'. Measure 81 continues with 'A-dō-noy e-hod'. Measure 82 has a triplet of notes with the lyrics 'V-o-hav-to-es A-dō-'. Measure 83 continues with 'A-dō-noy e-hod'. Measure 84 has a fermata. Measure 85 has a triplet of notes with the lyrics 'V-o-hav-to-es A-dō-'. Measure 86 has a triplet of notes with the lyrics 'noy e-lō-he-ho'.

4) 12음 기법

이 부분에서는 『바르샤바의 생존자』에 사용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2음 기법은 쇤베르크가 무조음악 시기 이후 7년간의 공백기를 보낸 후 나타난 것으로 그는 이 기법에 대하여 “오늘 나는 한 가지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100년간 독일음악의 우위를 보장할 것이다.”⁶⁸⁾라고 할 정도로 혁명적인 발견으로 음악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기존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은 12음이 여러 파편으로 연관성 없이 흩어진 상태로 무질서하게 사용되어 작품에서 일관된 체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12음 기법은 이런 무조음악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규칙이다. 이 12음 기법은 절대적인 하나의 음악 양식이 아닌 작곡을 함에 있어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적 역할에 가깝다. 12음을 사용해 하나의 음렬을 구성할 때에는 12개의 각 음이 한 번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즉, 이것은 평등함을 뜻하며 12개의 음 각각을 독립된 완전체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68)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전계서, p. 412.

12개의 음을 사용해 음렬을 만드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⁶⁹⁾

- ① 처음 기본 음렬을 만들 때에는 작곡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직될 수 있다.
- ② 하나의 옥타브를 구성하고 있는 12음은 동등하게 사용해야 하며 같은 음이 1번 이상 등장할 수 없다.
- ③ 기존의 화음 형태와 조성을 떠올릴 수 있는 음의 배치는 12음 기법의 성격과 반대되는 것으로, 음렬을 만들 경우 장3도, 단3도와 같은 화성을 암시하는 연속 진행은 피해야 한다.
- ④ 12음은 어느 옥타브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 ⑤ 기본 음렬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기반으로 한 3개의 변형 음렬을 파생시킬 수 있다. 이 변형 음렬의 종류에는 전위(Inversion), 역행(Retrograde), 역행 전위(Retrograd-Inversion)가 있다.
- ⑥ 이전에 사용된 음렬은 작곡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⑦ 기본 음렬은 변형된 3개의 음렬과 함께하므로, 하나의 기본 음렬을 사용해 총 48개의 음렬 형태를 만들 수 있다.

69) 민경훈, 전계서, pp. 277-299.

다음은 “바르샤바의 생존자” 제1부분 4종류의 음렬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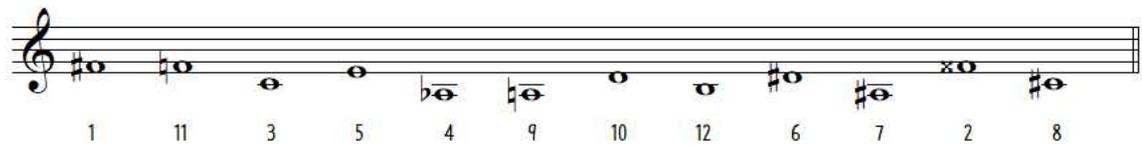
- <악보 11> 기본 음렬(Original, O : 약자 O로 표기한다.)

작곡가가 처음 구성한 기본형태의 음렬.



- <악보 12> 전위 음렬(Inversion, I)

기본 음렬의 선율을 반진행으로 재구성 한 음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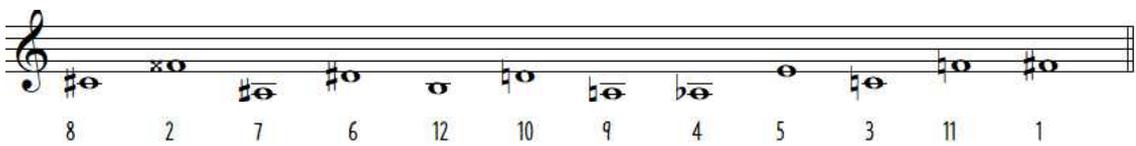
- <악보 13> 역행 음렬(Retrograde, R)

기본 음렬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진행하는 음렬.



- <악보 14> 역행 전위 음렬(Retrograde-Inversion, R.I)

전위 음렬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진행하는 음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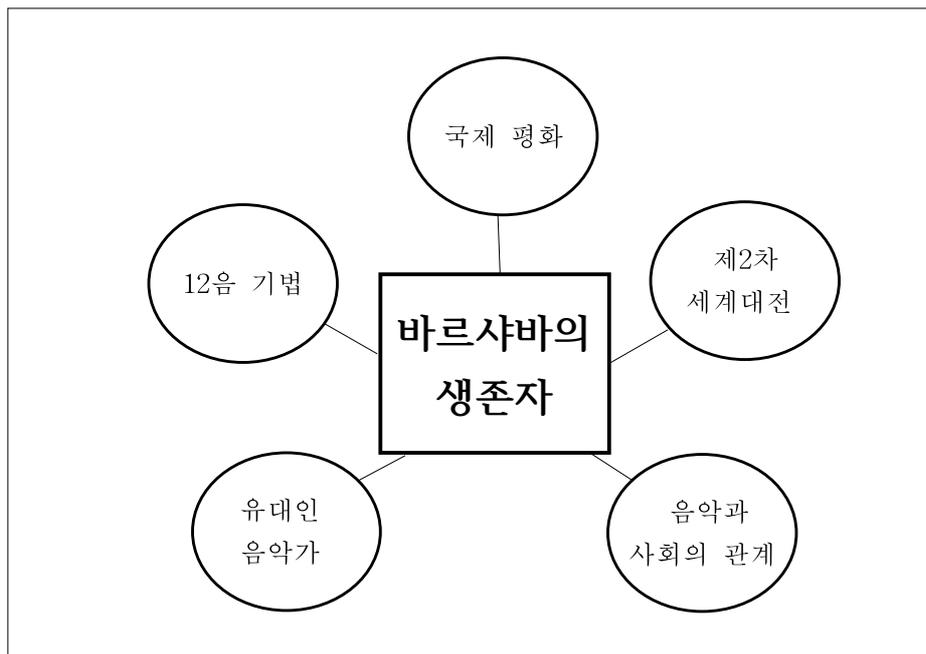


III. 교수-학습 방안의 실제

1. 지도계획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세계사 교과의 '제2차 세계대전' 과 음악 교과의 '원베르크-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한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수업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이며 1차시와 2차시 총 두 번의 수업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포가티 통합교육과정의 여러 모형 중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두고 이와 관련 있는 요소들을 엮는 '거미줄형'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 설계 모형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그림 6> 포가티 거미줄형 모형으로 재구성한 수업 설계 모형



1차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전개 및 제재곡인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와 그 구성요소들을, 2차시는 전쟁의 전개 과정과 전후 결과 및 제재곡에 나타나는 음악기법을 배치해 수업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각 차시별 학습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각 차시별 학습목표

차시	학습목표
1	1. 제재 곡을 감상하고 떠오른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3. 작품 속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1. 작품에 사용된 12음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악보에 나타낼 수 있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평화 유지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2. 1차시 수업지도 계획

1차시는 제재곡인 '바르샤바의 생존자'의 감상에 중점을 둔다.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감상하며 구성요소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파악하고 작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감상에 앞서 작곡가인 쇤베르크의 생애와 작품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유대인이던 쇤베르크가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어서 제재곡의 배경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학습한다. 제시된 원인에 대한 토의를 하며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전쟁의 전후 상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진행 과정이 이후의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형성 평가를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는다.

3. 1차시 수업지도안

차시	1/2	대상	고등학생	과목	음악
제재곡	원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학습목표	1. 제재 곡을 감상하고 떠오른 자신의 느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작품 속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3. 작품 속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단계	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및 출석	<input type="checkbox"/>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인사한다.	
	동기 유발	<input type="checkbox"/>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한 장면을 보여 주며 집중하게 만들고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13ScnosXAk&ab_channel=Movieclips -영상 속 장소는 어디이고, 어떤 상황일 것 같은지 질문하고 학생들이 직접 대답하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input type="checkbox"/> 영상
	학습 목표 제시	<input type="checkbox"/> 학습 목표를 제시하며 학생과 함께 읽는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제재 곡을 감상하고 생겨난 자신의 느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div>	
전개		<input type="checkbox"/> 작곡가 원베르크의 생애를 간략히 설명한다.	<input type="checkbox"/> PPT, 필기구

	<p>작 곡 가 이 해</p>	<p>- 쇤베르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 작곡가로 그가 작품 경향은 제1기 독일 후기 낭만주의적 경향, 제2기 무조음악, 제3기 음렬 음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쇤베르크가 창조한 무조음악과 12음 기법은 음악계에 큰 격변을 가져왔다.</p>  <p>□ 유대인에 대해 설명한다.</p> <p>-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유대교를 믿는 민족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다.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강제 노역을 하다 가스실에서 희생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에는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이 있음을 알려주고 학생들의 흥미를 더한다.</p> 	
	<p>작품 구성 요소</p>	<p>□ <바르샤바의 생존자>의 개요와 구성요소를 설명한다.</p> <p>- <바르샤바의 생존자>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수용소에서 탈출한 젊은이가 전쟁이 끝난 후 쇤베르크를 찾아와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학생들에게 작품의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임을 설명한다.</p>	<p>□ 영상, PPT</p>

		<p>-오케스트라, 남성합창, 나레이터가 함께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나레이터는 극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p> <p>-나레이션의 표현 기법인 슈프레히슈티메(Sprechstimme) 기법을 설명한다. 이는 말하는 가사로 노래와 낭송의 중간 형태로 이 중 어느 한 쪽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p>	
<p>작품 감상</p>	<p>□ 제재곡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들려준다.</p> <p>-교사는 감상 전 작품의 생존자가 경험한 당시의 상황이 담긴 나레이터의 텍스트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어 감상의 이해를 돕는다.</p> <div data-bbox="641 860 1166 111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46 1137 1171 1393" data-label="Image"> </div> <p>https://www.youtube.com/watch?v=41-_556CqbU&ab_channel=avihu4</p>	<p>□ 감상 환경을 조성한다.</p> <p>□ 영상, PPT, 필기구</p>	
<p>표현하기</p>	<p>□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느낌 표현하기</p> <p>-학생들은 작품을 감상 후 자신의 느낌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p>		
<p>작품의 역사적 배경</p>	<p>□ 작품 속 배경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p>		

□ 베르사유 조약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독일과 연합국은 평화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독일이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동시에 막대한 배상금을 피해국들에게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쟁 직후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여기에 베르사유 조약까지 더해져 더 이상의 국가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 관련 내용에 대하여 토의하기

-교사는 연합국의 베르사유 조약이 공평한지 공평하지 못한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대공황

-배상금의 지불 능력이 없던 독일은 미국의 도스 안(Dawes Plan)을 계기로 미국에서 차입한 자금을 통해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1929년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닥치며 독일로 유입되었던 미국 자본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자 독일은 다시 한번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 극단적 민족주의</p> <p>-이탈리아에서 처음 나타난 파시즘(Fascism)은 유럽 민족주의 의식에 불을 지폈다. 독일은 1932년까지 바이마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이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일자리 정책을 주장하던 나치당(NSDAP)의 입지가 높아지며 결국 1933년 1월 30일 나치의 집권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하여 폴란드에 귀속된 '폴란드 회랑'의 반환을 폴란드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p>	
	<p>작품의 의미 생각해 보기</p>	<p style="text-align: center;">□ 윈베르크가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쓰며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지 생각해 본다.</p> <p>-자신이 생각하는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간단하게 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마무리</p>		<p style="text-align: center;">□ 형성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음 차시를 예고하며 수업을 마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형성평가지</p>



4. 2차시 수업 지도 계획

2차시는 바르샤바의 생존자에 사용된 20세기 초 현대음악에서 나타나는 작곡 기법인 12음 기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직접 실습해보며 당시의 작곡가들이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 이유와 전통적 작곡 기법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볼 수 있다. 1차시에서 학습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이어 본격적인 전개 과정과 전쟁 이후의 국제 상황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 유지에 힘써야 함을 이해한다.

5. 2차시 수업지도안

차시	2/2	대상	고등학생	과목	음악
제작곡	쉴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학습목표	1. 작품에 사용된 12음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악보에 나타낼 수 있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평화 유지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학습단계	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및 출석	□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인사한다.	
	이전 학습 상기	□ 이전 차시 수업을 상기하며 오늘 수업의 이해를 돕는다. -전시 수업 내용인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요약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동기 유발	□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설명한다.	□ 영상, PPT

		 <p>https://www.youtube.com/watch?v=KLOJj6SjoGE&ab_channel=394anonymous</p> <p>-국가의 파괴 및 군인과 국민의 희생이 따르는 전쟁의 참혹성을 설명한다.</p>	
	<p>학습 목표 제시</p>	<p>□ 학습 목표를 제시하며 학생과 함께 읽는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작품에 사용된 12음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악보에 나타낼 수 있다.</p> <p>2.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p> </div>	
<p>전개</p>	<p>제 2차 세계 대전 의 이해</p>	<p>□ 제2차 세계대전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한다.</p> <p>-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2년까지 6년간 이루어진 가장 규모가 컸던 전쟁이다.</p> <p>-독일과 연합국의 전투가 계속되는 도중 이탈리아도 추축국으로 참여하였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연합국에 대항하기 위해 삼국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1941년 6월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바르바로사 작전'을 시행해 소련을 침공한다.</p> <p>-1941년 일본이 선진 포고 없이 진주만을 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따른 미국의 참전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불리하던 연합국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며 승기를 가져왔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으로 일본이 항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p>	<p>□ 영상, PPT, 필 기구</p>

		 <p>-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뭉친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지며 냉전 체제가 시작되었고, 이 같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1945년 국제연합(UN)이 설립된다.</p> 	
발표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 발표하기</p> <p>-UN의 설립과 같이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발문하고 학생들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발표 시간을 갖는다.</p>	<p>□ 충분한 발표 기회를 제공한다.</p>
실습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 실습 준비하기</p> <p>-원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에는 한 가지 규칙이 숨어 있다고 발문하며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12음 기법 실습 규칙을 설명한다.</p> <p>-12음 기법은 반음계의 12개 음이 모두 같은 빈도로 동등히 사용되어야 하며 12개 음 모두가 등장할 때까지 그 어떤 음도 반복될 수 없다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p>	<p>□ 악보, 필기구</p> <p>□ 12음 기법의 규칙을 잘 지키며 실습할 수</p>

있도록
지도한
다.

□ 작품에 사용된 작곡 기법인 12음 기법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악보에 나타낼 수 있다.

-12음 기법이란 쇤베르크가 자신의 무조음악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체계를 잡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12음 기법이 적용된 음악을 '음렬 음악'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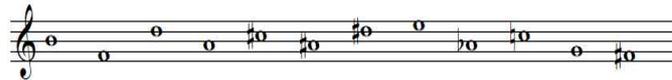
-12음 기법은 기본 음렬, 역행 음렬, 전위 음렬, 역행 전위 음렬 네 가지가 있으며 하나의 기본 음렬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음렬의 개수는 모두 48가지이다.

1. 기본 음렬(Orig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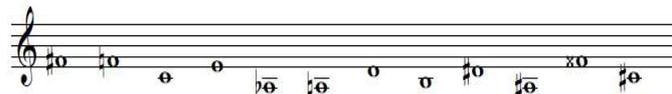
기본 음렬은 작곡가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구성한 기본 형태의 음렬을 말한다.

2. 역행 음렬(Retro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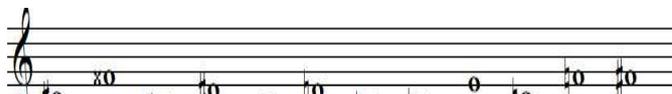
역행 음렬은 기본 음렬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진행 시킨 음렬이다.

3. 전위 음렬(Inversion)



전위 음렬은 기본 음렬의 선을 진행을 반진행으로 재구성 한 음렬을 말한다.

4. 역행 전위 음렬(Retrograde Inversion)



역행 전위 음렬은 전위 음렬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진행 시킨 음렬이다.

<p>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평가지를 작성하며 스스로 평가하여 본다. □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새롭게 배운 내용과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연결시킨다. □ 다음 차시를 예고하며 수업을 마친다. 	<p>□ 자기 평가지</p>
------------	--	---	-----------------

<표 8> 2차시 수업 자기평가지

학습				태도			
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상	중	하	수업에 바른 태도로 임하며 집중하였다.	상	중	하
12음 기법을 활용하여 악보에 나타낼 수 있다.	상	중	하	발표와 토의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상	중	하
작품을 감상한 후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상	중	하	감상 활동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상	중	하
음악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상	중	하	다음 차시 수업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상	중	하
오늘 학습한 내용 중 흥미로웠던 내용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자유롭게 쓰시오.							
오늘 수업 중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 또는 보충하고 싶은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쓰시오.							

IV.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만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는 그동안의 예측 가능했던 전통적이고 익숙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가 아닌,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이라 불릴 정도의 창의적 변화이다. 이 거대한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흐름도 바뀌어야 함을 시사하며, 본 논문은 현대음악을 중점에 두고 총 2차시로 구성된 음악 교과와 세계사 교과의 통합적 수업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악은 다른 어떤 예술보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대의 음악인 현대음악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세계사 교과와의 통합은 교과 본연의 특성을 유지하고 창의·융합적 사고를 넓혀 악곡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이 두 교과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과 사회를 다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사고를 확장하고 이 확장된 사고를 다른 교과와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연구에 앞서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통합교육의 개념과 그 필요성 그리고 현대음악 교육의 당위성 살펴보고 여러 통합교육의 유형 중 포가티의 통합교육 유형을 모델로 삼았다. 20세기 현대음악의 여러 사조 중 표현주의 사조인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제재곡으로 삼고 악곡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제2차 세계대전'을 이와 관련지어 학생들이 현대음악에 보다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1차시에는 제재곡 <바르샤바의 생존자>라는 현대음악 지도에 앞서 관련 영화를 이용하여 현대음악에 호기심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단계를 설정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감상을 통해 작품 안에 사용된 현대음악만의 독특한 기법과 특징을 경험하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을 연계하여 전쟁의 원인을 알아보며 작곡가가 전달하고자 한 음악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느끼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을 지도한다.

2차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내용을 보다 심화시켜 전쟁의 전개과정과 이후의 국제 정서를 학습한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어떻게 세계 대전으로 확장되었는지 알아보고 국제 평화 기여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생각해본다. 1차시에서 감상한 <바르샤바의 생존자>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음악적 특징인 12음 기법을 직접 실습해보며 기본 음렬, 역행 음렬, 전위 음렬, 역행 전위 음렬 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현대음악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수업의 결과로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음악의 토대가 될 현재의 음악인 현대음악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음악과 타 교과와의 통합교육을 통해 음악을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시각으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들을 연결 지어 조직할 수 있는 확산적 사고 능력 및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제껏 학교 음악교육에서 현대음악이 소외당하고 전통적 조성음악 위주로 이루어졌던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성찰 요구와 동시에 현대음악의 낯선 음악적 어법을 풀어가는 음악교육 방법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낯선 현대음악을 익숙한 다른 교과와 연결 지어 작품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높은 학습 전이 보여주는 통합교육을 통한 접근이라 여겨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지도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고 창의·융합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음악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학생과 교사들의 현대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현대음악 교육방법이 연구되고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육과학기술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곽병선,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83.
- 김재복,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1995.
- 김재복, 『통합교육과정』, 과주: 교육과학사, 2000.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1999.
- 송진범, 『음악교육학』, 서울: 학문사, 2000.
- 유광찬, 이영준, 송규영, 『통합교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이경민, 최일선, 『통합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서울: 학지사, 2009.
- 이경분, 『망명음악, 나치음악 : 20세기 서구 음악의 어두운 역사』, 서울: 책세상, 2004.
- 이영만, 『통합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2001.
- 이종구, 『20세기 시대정신과 현대음악』,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7.
- 이홍수,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경기도: 나남, 2014.
- Donald J. Grout,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하)』,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7.

2. 학술지

- 김경화, "원베르크와 전통", 『서양음악학』, 14 no.3, 한국서양음악학회, 2011.
- 김은, "고등학교 음악교과에서의 현대음악 학습실태 조사연구", 『음악교수법연구』, 7, no.0,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논문집, 2011.

- 민경훈, “현대음악 학습 방법 연구”, 『음악이론연구』, 4,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1999.
- 민경훈, “음악교사를 위한 현대음악 지도방법 연구-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본보기로”, 『음악과 민족』, 29 no. 29, 민족음악학회, 2005.
- 이경분,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와 망명음악”, 『낭만음악』, 5 no. 38, 낭만음악사, 1999.
- 이진모, “나치의 일자리 만들기와 재무장 : 그 신화와 비극”, 『역사비평』, no.87, 역사비평사, 2009.
- 이현대, “독일 대공황(1928~32년)의 원인 재론”, 『經商論叢』, 38 no.3, 한독경상학회, 2020.
- 임상우,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과 유럽평화의 이상”, 『통합유럽연구』 9 no.2,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2018.
- 황미경, “망명 작곡가 쇤베르크의 삶과 음악언어”, 『獨逸學研究』, no.20,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4.

3. 학위논문

- 김연아, “고등학교 현대 음악 학습 지도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김윤정,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2004.
- 박지윤, “중학교 음악통합수업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 박지은, “뮤지컬을 활용한 음악교과와 역사교과 통합수업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 서예영, “타 예술과 연계한 현대 음악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7.

송진범, “아도르노의 사회비판적 음악교육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이효진, “음악교과와 역사교과의 통합적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4. 사이트

홀로코스크 백과사전 <https://encyclopedia.ushmm.org/>

5. 악보

Schoenberg, Arnold. A Survivor From Warsaw, Op. 46. Germany: Schott Music GmbH & KG, 1947.

https://search-alexanderstreet-com-ssl.lib.jejunu.ac.kr/view/work/bibliographic_entity%7Cscore%7C5093332.

ABSTRACT

A Study on Guidance Plan for Integrated Education of Modern Music Using World History

- Focusing on Schoenberg's "A Survivor from Warshaw"

Woo, Ju Hyeo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o Jung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Music contains not only the inherent quality of music, but also the spirit of various times related to music. It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in music classes that the social meaning of music is understood through music of various times. However, due to the use of standardized music in today's classrooms, modern music in the 20th century, which is closest to the present era, has lost its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As a result, this study aims to allow the meaning and value of music to be explored in depth through various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based on the widespread thoughts that emerge as a result of integrated education, and to become creative talent in line with the times of the future.

To approach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meaning of modern music and insists on its justification, and proposes an integrated map of world history with World War II, focusing on Schoenberg's "A Survivor from Warshaw" which is a modern music in the 20th century. The type of

integrated education was explored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on literature and good deeds in order to form a total of secondary guidance plans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integration type of Fogarty, which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suitable for the nature of the study through exploration, was selected and the class was organized in a spider-shaped model belonging there.

In the first session, the boundaries of students' modern music were broken down, and the techniques and elements of expression of modern music were naturally introduced, and the class was designed. It is followed by the learning of World War II to provide the conceptual background of the work so that the meaning of the elements of expression can be explored, and formative evaluation is conducted after the class is over so that the degree of students' understanding can be understood.

In the second session,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the principles of modern music techniques used in the work was conducted based on what was learned in the first session. The social changes caused by World War II are understood, and the self-assessment paper is used to reflect on itself and the class is concluded.

Modern music is not born anywhere on its own, but it is developed organically with the music of the past. Through this process, the culture and history of music were formed. Through the experience of integrated modern music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change their positive perception of modern music. It is also hoped that this unfamiliar experience will serve as a trigger for the pursuit of various musical experiences, including modern music.